

학교환경 교육의 필요성



한 만 오
성암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환경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편하게 그리고 쉽게 살아가려고 할수록 우리의 삶은 매 말라 버리기 쉽다. 일시적인 나만의 편리함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더불어 느껴야 하는 보람과 즐거움은 그만큼 멀어질 수 밖에 없다. 그 한 예로 일회용 물건을 사용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편하고 쉽지만 이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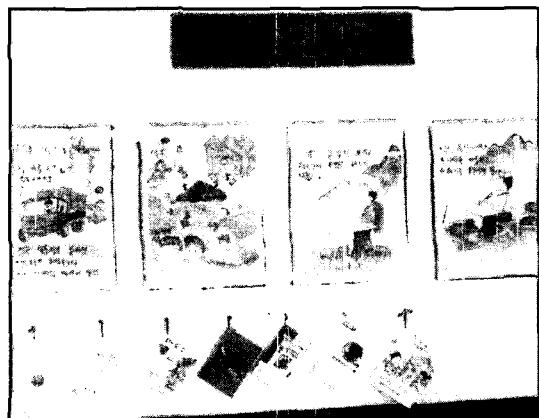
환경을 생각하고 재활용을 몸소 실천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육을 행하는 일은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바람직한 교육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만큼 가치가 있다는 확신으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학교환경 교육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학교 환경 교육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의 범위를 넓혀 이제는 생명에 바탕을 둔 환경 생명교육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환경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에 바탕을

둔 가치관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목적을 인간의 도덕성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단순한 자연보호나 환경보전의 차원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이 상호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식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환경 교육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서로 관련되어 상호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역시 이들 한 부분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궁극적으로는 환경과 인간 전체에 미치게 됨을 교육을 통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자연속에서 인간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자연과 환경, 그리고 특히 생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며, 살아있는



▲성암여상내 '환경의 거리' 환경보전 게시판

독자기고

모든 것은 생명을 그 바탕으로 하는데 모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하고 관계(network)를 맺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가 분화되고, 산업과 교통, 통신 등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은 자연과 환경 속에서 상호 작용하는 유기체라는 자각을 잊기 쉽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환경과 생명에 대한 개념은 모든 영역, 모든 대상에 공통 분모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의 적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환경문제의 근원과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환경문제의 근원, 곧 우리가 환경 교육을 전개할 때 극복해야 할 대상은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환경 교육을 통하여 환경과 생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과 생명 문제를 개인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을 통한 접근이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이다.

물론 학교 교육만으로 환경, 생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현재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미래에 대응해 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각 학교에서 전개될 환경·생명 교육은 생명에 바탕을 두고 자연 생태계, 지구 환경, 인간 생활을 함께 고려하는 가치관 변화와 도덕성에 그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제부터의 환경·생명 교육은 단순한 자연보호나 환경 보전의 차원을 넘어서 자연 생태계와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에 바람직한 환경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은 단순 ‘오염을 막는 교육’이나 ‘환경에 대한 교육’에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교육’, 그리고 ‘환경을 위



△환경보전 바자회

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물질지향적이고 무절제한

소비 생활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태적인 생활 양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은 학교 환경·생명 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환경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학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학생들에게 환경과 생명을 배우고 가꾸는 의식(철학)을 심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환경과 생명 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 및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바로 세우는 데는 교육적 해결방법이 가장 효과적이

따라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칠 각종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학교 환경, 생명 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또한 환경과 생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시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세우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